

119팀, 북한 용천 1만불 긴급지원

29일 중국 단둥으로 출국, 콩 20톤 압록강통해 북한 용천 보내기로



사진설명: 한국교회 이름으로 북한 용천으로 보낼 콩을 싣고있는 모습

119팀(위원장 성백술장로, 팀장 한정웅집사)이 북한 용천에 10,000 달러를 긴급지원하기로 하고, 한정웅집사, 박형기집사, 김삼화집사 3명을 3박 4일 일정으로 4월 29일 (목) 오전 9시 비행기로 중국 심양을 거쳐서 단둥으로 가도록 파견하였다. 함께 가게 된 김삼화집사는 중국 공산당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에서 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3부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님의교회에서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커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고 4월초에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기꺼이 가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내담자 가운데 단둥사람이 있

어서 그곳의 지리와 사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라며 짙막한 간증을 하였다. 문동학목사는 "이번 북한 용천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국제사회와 남북한 관계 등에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사건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망하면서, (2면에서 계속)

2004무지개축제, 5월16일

연합예배 10시,
구역별로 식사, 먹거리장터도 운영,
주차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2004무지개축제가 5월16일에 열린다. 전체 4부로 1부는 예배, 2부는 점심식사와 놀이, 3부는 전교인운동회, 4부는 전교인어울림의 시간이 될 것이다. 먼저 주일예배는 기존 7:30분의 1부예배는 그대로, 2,4부예배는 연합으로 드리며 10시부터 시작한다. 기존 시작보다는 30분 앞당겨서 시작하게 된다. 식사는 구역별로 하게 된다. 당일 교내에는 모든 차량출입이 통제되며 장애인차량만은 예외로 강당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하며, 교내진입이 허용된다. 구역별 식사차량은 통행스티커를 달고 있는 1대만 허용되지만 주차는 할 수 없고 준비한 식사만 내려놓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주차하여야 한다. 구역식사차량의 통행스티커는 1주전 수요구역장공부시간에 구역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구역별 식사는 연합예배시간 동안 1층 친교실에 보관할 수 있다.

(4면에서 계속)

5월 1일 친교실 오픈

'월만한 물가' 드디어 새롭게 개장

교회 안의 친교의 중심으로 명실공히 자리 매김 하기를

오랜 기다림이었던 교회내의 쉼터가 "월만한 물가"라는 이름으로 5월 1일에 문을 열었다. 학교와 교회가 연합하여 이룬 커다란 건물에 교우들과 학교의 교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담소할 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해소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공간이 교인과 비교인의 구분 없이 이웃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점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중 전일(월-토) 문이 열린다. 운영자 전원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얻게 될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당회와 담임목사의 지원이 컸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필요한 비품의 기증이 있었다. 냉장고(박순실 권사), 로망셰이드 커튼(조원호 집사), 빙삭기, 커피잔(안피가로집사), 전자레인지(선원정집사), 화분1점(문동학목사)

미국시카고 WCA 교사 연수 5월7일 10명출발



사진설명: 미국 시카고 WCA 교사 연수

교육위원회의 교사와 당회원으로 구성된 10명의 연수팀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의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는 연수일정에 들어간다. 연수팀은 월로크릭교회를 방문,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와 주일예배 그리고 주일학교예배를 참석하게 되고(8-9일) 어와나(AWANA) 시카고 본부를 방문하게 된다.(10일)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황형택목사)를 방문하여 자체 세미나와 예배를 갖게 된다.(11-12일) 이후 세인트 루이스로 이동(13일) WCA Conference에 이틀간 참석하게 된다.(14-15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16일)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하게 된다.
(4면에서 계속)

전화상담부사역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4월 26일 월요일 비가 내리는 날 전화상담 사역자 6명이 교회 5층 상담실에서 함께 모여서 4월 한 달간의 상담사역에 대하여 돌아보며 사례를 발제하고, 개인이 누리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숙 부장은 "상담부의 사역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가장 큰 사역의 도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화상담 사역자들이 합심해서 내담자와 사역자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여 기도할 것을 제안하고 돌아가면서 개인적인 기도제목과 함께 전화상담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첫째는 상담부의 존재의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문동학목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문가가 아닌 상담사역자는 아마추어로서의 한계를 지키며 처방과 진단보다는 '경청의 사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받았고, 상담부의 역할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인복지 등의 사역팀이 형성될 경우 상담부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인 사역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확인하였다. (4면에서 계속)

오늘 기도



당신 앞의
성령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역자와 권사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권사회 월례회』

권사회가 4월 27일 (화) 오전 11시 1층 자모실에서 월례회로 모였다. 윤덕영 목사를 모시고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장소를 로터스 가든(중식당)으로 옮겨 오늘 주신 말씀(갈6:6-7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대로 주님의 교회 교역자와 사모, 그리고 권사들 간에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소개하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교인들은 주의 종인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듣지만 교역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양무리'이므로 교역자들도 교인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며 서로 섬김으로 양방 간에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윤목사의 말씀이 더욱 와닿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상경 권사의 재치있는 목사님 소개 방법과 년센스 성경 퀴즈 대회는 식사를 더욱 맛있게 하는 유익한 양념 소스였다. 화기에애한 가운데 식사를 마친 교역자와 사모, 권사들은 문동학 목사의 이들을 위한 마무리 축복 기도 속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헤어졌다.

이 같은 좋은 '코이노니아'가 자주 이루어져 서로 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욱 많이 갖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피택자 일일수련회, 담임목사,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에게 사역자 되길 당부

6월 27일 창립기념주일 맞춰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하기로

지난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올해 6월에 안수를 받는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 대상 일일 수련회가 3층 초등학교실에서 담임목사의 강의와 김성관 목사의 헌법 강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피택 장로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지난 해 하반기동안 거의 매주 한번씩 만나며 교회와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이미 나누어 왔다. 이번에 계획된 안수 집사, 권사 대상의 일일 수련회는 피택자 대부분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실시된 리더반 훈련을 모두 충실하게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훈련은 이미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역자로서 일하게 될 때 어떤 사역의 원리와 기초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 기본적인 자세에 관하여 담임목사의 강의를 통해 마지막 교육을 받



는 성경을 떠났다.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한 10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고, 모든 피택자들이 이 내용을 자신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자주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당부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역의 기초는 성품, 사역의 본질은 섬김, 사역의 동기는 사랑, 사역의 척도는 희생, 사역의 권위는

순종,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사역의 도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의 특권은 성장, 사역의 능력은 성령,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무쪼록 이번 안수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모든 분들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더욱더 주님의교회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든든한 일꾼과 기동으로 힘있게 사역하게 될 것이다.

무지개축제 준비 중

청년부 놀이마당 진행 담당

5월 16일에 있을 무지개 축제에서 청년부는 놀이마당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년부 임원들은 지난 24일 임원회의를 갖고 놀이마당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를 논의 하였다. 외부에서 놀이기구를 대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청년들이 전적으로 놀이마당을 맡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임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듯 했으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꾸려나가기에는 청년들의 헌신이 필수적이며 교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놀이의 종류들은 이번 주일 청년부 전체모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분

5월에 환급 받으세요

우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신고서 양식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보름 이내에 소득과 납세 사실 등을 확인하고 납세자가 기재한 계좌로 세금 환급분을 돌려준다. 5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 데도 공제

를 받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때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못해 누락된 경우에도 5월에 새로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 받는다. 연도 안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 경우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퇴직 후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기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무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아울러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무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때 이중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정기부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119팀 난곡 공부방 소식

2교구 익명의 여집사님이 중고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도록 120만원을 난곡공부방에 지원하여 난곡공부방 선생님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난곡공부방에

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위하여 교사로 봉사할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대는 오후 3시 이후가 되고, 개인의 형편이 되는대로 일주일에 하루라도 자원봉사할 청장년이 필요한 상태이다. (문의: 한정웅집사, 0108-001-1144)

(1면에 이어서)

119팀 북한 용천 1만불 긴급지원

콩 20톤 북한 용천 보내기로

119팀이 직접 현장에 가서 10,000달러를 긴급물자로 바꾸어서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9팀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단장 조현삼목사)과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동 대표부 전성근대표와

연합하여 압록강을 통하여 콩 20톤 약 400가마를 압록강을 통하여 보낼 계획이다. 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북한 용천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양보급(환자의 영양식)이 꼭 필요한데 쌀은 중국 당국에 의해 반출 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대신 콩 20톤을 택하여 30일 금요일 압록강을 통하여 북한으로 전달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지난 29일 목요일에 의류 성인용 티 2000장, 아동복 1,000장, 양말(아동, 성인) 4,000족, 신발(아동, 성인) 2,400족, 가스렌지(의료기구 소독용) 54대, 부탄가스 504통, 30일 금요일에는 5% 포도당 2만병, 링거수액세트 2만개, 의료용기 소독용 스텐레스 기기 50대를 압록강을 통하여 북한 용천으로 전달했다.

8개월 동안 영아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영아부 정재경 전도사 개인적 사정으로 아쉬운 사임

작년 9월 첫주부터 영아부 사역을 시작한 정재경 전도사는 8개월여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일(4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사임하게 되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목회와 본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영아부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되어 영아부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서운한 마음이었다. 4월 마지막 주일 월례회겸 조출한 송별식을 하며, 그동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음을 감사드

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아기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정재경 전도사의 산경험을 살려 아기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알차고, 신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영아부에 합당한 새로운 교역자를 보내 주시리라 기대감을 가져본다.



통합유아부 '썩트네'

'썩트네' 홍보 역점 두기로

4월 25일(주일) 고등부 수련실에서 썩트네(통합유아부)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최재경 집사가 직접 준비해주신 콩나물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자 많은 의견이 오고가며 진행되었다. 주된 토론 내용은 유아부 '썩트네'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홍보와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정했다. 그리고 5월에 있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매월 해주는 생일 파티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썩트네는 매 주일 오전 9시30분에 0-7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통합아동부 예배 청년팀 초청

청년의 열정적인 뮤지컬 공연

신나는 율동과 슬리퍼 던지기 게임이 끝난 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흥이 났다. 멋지게 분장하고 차려입은 언니 오빠들이 나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예쁜 지팡이를 선물삼아 신나게 춤과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깐, 통합아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자 애쓰고 있다. 4월 18일에는 특별히 청년부의 뮤지컬 팀을 초청했다. 부활절 열정적인 뮤지컬 공연을 한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의 하나임을 깨닫게 되어 뮤지컬 공연을 마친 청년부 뮤지컬 팀장인 김정희씨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 그들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이어 4월 18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뮤지컬팀은 분장에서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한 뒤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감동의 공

연을 해주었다. 아이들은 짧은 메시지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종이를 접는다. 자신들에게 주신 감사한 선물을 기억하며 지팡이를 만들고 있었다.

유치부 율타리 안에 우린 한 가족

『유치부 교사 월례회』



4월 넷째 주에는 유치부는 다양한 활동을 가진다. 첫째로 어린이 생일파티가 있다. 예배가 끝난 뒤 6살, 7살 친구들이 두 줄로 서고 생일을 맞은 친구들 머리에 고깔모자가 씌어지면 생일 축하노래를 불러주며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한명씩 나와 뽀뽀인사를 나눈다. 조그만 아이들

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축하해주는 모습과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절로 떠올리게 하며 그 순간 작은 천국이 된다. 유치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뒤 4월을 돌아보고 5월을 계획하는 교사 월례회가 있었다. 5월에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무지개 축제 등을 준비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윤현숙 부장이 한 달 전부터 계획한 강화도 교사소풍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매 주일 유치부 예배를 통해 만나지만 제대로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교사들은 아름다운 광성보의 자연환경 속에서 함께 일상생활의 피로를 풀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윤현숙 부장의 부군 강용순 집사는 전 유치부 부장으로 두 분의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사소풍을 마련해 주어 교사들의 감사와 즐거움이 더욱 컸다. 4월 넷째주일의 길었던 하루는 5월 가정의 달, 유치부라는 한 율타리 안에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청소년사역 두 번째 공개강좌

십대들의 썩지 발행 김형모씨 초청

비전팀과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소예배실에서 '십대들의썩지' 발행인 김형모씨를 초청하여 청소년사역을 위한 공개강좌를 갖는다. 십대들의썩지는 "갈만한 곳도 없고 설만한 곳도 없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 홀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김형모씨가 1984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월간 잡지이다. 현 책을 판 돈 26만원으로 5000부를 찍은 것을 시작으로 월 30만부를 발행하는 지금까지 20년동안 제작비와 우송료를 충당하는데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큰딸 이름도 "썩지"라고 지으면서 '십대들의썩지'를 계속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십대들보다 십대를 더 잘안다는 김형모씨의 20년동안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교회의 청소년사역의 나아갈 방향을 보다 선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 비전팀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년사역에 관심있는 분이나,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진촬영 『유년부 교사 월례회』

4월 18일(주일) 유년부는 예배 후 교회 정원의 싱그러움 나무와 예쁜 꽃들을 배경으로 반별 사진 촬영이 있었다.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예수님과 담담 교사의 모습을 함께 담고자 예수님의 활짝 웃는 모습을 제작하여 사진 속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예쁜 액자를 구입해서 사진을 넣어 주면 아이들이 볼 때 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겠지?' 교사들의 기대와 기쁨이 컸다. 예배가 끝나고 유년부실에서 점심식사와 더불어 4월 월례회를 가졌다. 4월을 평가하고 5월을 계획하는데 팀별 사역에 중점을 두

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각 팀장이 팀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발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따른 담당자와 준비물에 대해서는 다 함께 한 자리에서 결정하게 된다. 3월부터 6월은 '말씀 가르치기' 집중 기간으로 삼고 유년부 교사 한분이 매 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과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교습안을 실어 주고 있어 공과지도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 교사를 '교장샘'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마에서 그 빛이 더욱 발한다. 또 지금까지 해오던 달란트 잔치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한 해에 두 번 열리는

시장놀이의 문을 닫고 매주 아이들이 달란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보기로 했다. 매주 퀴즈와 게임을 통해 말씀 암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반별 DREAM예배(헌신예배) 때에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비용을 집중적으로 돕기로 결정했다.

초등부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퀴즈대회 진행

Open Book 성경퀴즈대회 난이도 높아

초등부에서는 4월 18일 성경퀴즈대회가 열렸다. 경연방식은 오픈-북 퀴즈였고 반대향 단

체전으로 진행되었다. 두 주일 전에 예상 문제가 출제되는 등 난이도가 꽤 높을 것이라 암시는 있었으나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대단히 강도 높은 성경 학습을 요구하는 25개 문항이 OHP 화면과 총무 임봉수 교사의 내용설명으로 출제되었다. 출제 범위는 창세기 1장 부터 22장 까지. 모두들 진땀을 흘리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어린이들은 발군의 성경실력을 발휘하였다. 덕분에 어린이들의 성경지식이 일취월장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잘 몰라서 머뭇거렸던 몇몇 친구들은 내년의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약했다. 중위권에서는 동점반이 속출했으나 다행히 상위 3개 반이 입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소년부 교사 월례회』

볼링치며 소년부교사들 즐거운 시간 가져

4월 마지막 주일이면 소년부 교사 월례회가 있다. 소년부 예배가 끝난 후 전교사들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한 달 동안 소년부에서 있었던 주요 행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찬양예배를 위한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5월 소년부 주요 행사를 계획, 준비하면서 소년부 친구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볼링장을 찾았다. 모두들 열심을 내는 모습에 승패를 떠나 교사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1. 청소년사역 공개강좌

오늘 오후1시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형모씨(십대들의 족지 발행인)입니다. 비전팀과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니, 교사와 비전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회내 모임 안내

- 중보기도사역팀 모임: 5월 4일(화) 오전 11시, 영아부실(지하1층), 팀장모임은 10시
- 1여성교회 월례회: 5월 4일(화)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4호선 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 왼쪽 정자)
- 2여성교회 월례회: 5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1층 친교실
- 무지개축제 먹거리장터 준비팀 모임: 오늘 오후 1시, 4층 소회의실(문의: 조원호안수집사 011-747-6257)

3. 이번주 교회 행사 및 공지

- 이번주 구역장 성경공부는 쉽니다. 그러나 수요성경공부는 평소대로 합니다.
- 고등부 징검다리 바자회가 오늘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교회마당과 식당에서 열립니다.
- 경향신문주최 마라톤대회가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4. 자원봉사자 모집

함글함글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글함글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사역을 위해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1면에 이어서)

미국시카고 WCA 교사 연수
5월7일 10명출발

본 연수팀은 미국의 단기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통해 21세기의 교회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님의교회 교육철학과 교육방향 그리고 교육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월로크릭교회의 열린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여 미국 기독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용점을 찾을 것이다. 특별히 교사의 역할과 자세, 학생과의 관계, 실용적인 부대시설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하게 될 것이다. AWANA는 주님의교회 교육부가 주요 예배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신앙훈련으로 이미 교사 세미나를 통해 전반적인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카고 본부의 현장을 참관함으로 새로운 일에도 도전해야 할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WCA 컨퍼런스는 "How to Build a Contagious Church"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기독교,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영시킬 수 있는 교회의 사명과 방향성을 얻고자 한다. 이론과 영상을 통한 교육이 아닌 실제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교육효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

하고 있다. 현재 연수팀은 현지에서의 시향착오와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체 세미나를 병행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

참여자 명단 / 단장 : 성백술(장로) 강웅순(유치부), 구본영(유아부), 김현령(담당교역자), 박지원(초등부), 윤명희(통합아동부), 윤봉섭(소년부), 윤현숙(유치부), 이상아(고등부), 최재경(통합유아부, 교육지원부)

(1면에 이어서)

2004무지개축제, 5월16일

연합예배 10시,
구역별로 식사, 먹거리장터도 운영,
주차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교구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교구표시에 맞추어 보관하면 된다. 식사는 구역별로 하게 된다. 또한 먹거리장터도 운영하니 유료로 먹거리를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먹거리장터만으로는 식사가 부족하므로 구역에서는 반드시 점심식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역별로 앉았던 자리의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청된다. 잔디,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행사후에는 전보다 더 깨끗한 모습 이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교인 운동회의 시간에는 2팀으로 나뉘게 된다. 한마음팀과 한가족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마음팀은 1,5,6교구, 청년 1부,

중등부로 구성되며 흰색상의를 입고 오면 되고, 한가족팀은 2,3,4,7교구,청년2부,고등부로 구성되며 붉은색 상의를 입고 오면 된다. 당일 교회에 올 때 팀에 맞는 상의를 입고 오면 되고, 당일날 교회 입구에서 실비로 구입할 수도 있다. 5월 16일에 열리게 될 2004무지개축제는 주님의 성도들이 한가족처럼 한몸되어 한 마음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전화상담부의 기도사역

전화상담부사역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두 번째는 상담 사역자의 계속교육에 관한 것이다. 신입 사역자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상담실에서 하던 것을 토요일로 옮겨서 하고 있고, 김광일 집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11시에 초등부실에서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하고 있다. 윤덕영목사는 2학기에 는 전화상담 봉사자들을 위한 소그룹모임을 만들어서 사역자 집단 역동을 통한 성숙과 계속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날 모임 후 식당에서 우리는 귀중한 체험을 했다. 이번에 상담사역자로 자원봉사 신청을 하신 장애우 이은희집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를 맞고, 휠체어를 계단까지 함께 올리고 식사를 하면서, 장애우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체험한 것이 그것인데, 우리의 눈높이를 주님과 같이 낮게 만들어준 이은희집사를 통하여 마음에 잔잔한 은혜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